

성서40주간(성서39주간: 베드로 1,2서)

1. 책의 이름 : 복된 사도 베드로의 서간(라틴말)

- 베드로 1서는 교회에서 돌려보는 편지로 소개되지만, 1,1-2과 맺음말 5,12-14에 나오는 인사말 외에는 편지에서 다룰 법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. 신자들이 일반적으로 겪게 되는 고난을 소재로 이야기를 풀어 나가고 있다.
- 베드로 2서는 특정 교회가 아닌, 모든 교회를 대상으로 한 공동 서간에 해당함.

2. 저술연대

- 제1서 : 70-90년대로 보고 있음
- 제2서 : 100-125년대로 보고 있음.

3. 구조

제1서

- 1,1-23 : 은총으로 새로난 그리스도인
- 2,1-10 : 교회는 하느님의 집 하느님의 백성
- 2,11-4,11 : 부르심 받은 신자들의 본분
- 4,12-5,14 : 깨어 믿음을 굳건히 하라.

제2서

- 1,1-11 : 그리스도인의 소명에 충실 하라
- 1,12-21 : 예언자들의 말씀에 유의하라
- 2,1-22 : 거짓 교사들에게 속지 마라
- 3,1-18 : 재림에 대한 희망과 축복

4. 내용

- 베드로 1서의 내용은 세례성사와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요약된다.
- 1장 : 생생한 희망(1베드 1,3-4) => 새로 태어남의 희망이다
-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? (1베드 2,11) (1베드 2,19) (1베드 3,1) (1베드 4,8) (1베드 5,5)
-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 : 1베드 3,8-9 => 이 시기는 박해 시기였으므로 그 당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곧 '고난'을 의미했다.(1베드 4,12.14)
- 베드로 2서는 교회에 보내는 호된 질책이라고 할 수 있다.
- 그리스도인의 덕행과 소명을 언급한다. (2베드 1,3.5-7)
- 성령에 대한 해석 => 성령은 그 탄탄한 기초를 그리스도에 둘 때 진정한 희미를 지닌다.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렇게 말한다(2베드2,13)
- 또한 거짓교사들에게 경고한 뒤 바로 '주님의 재림'에 대해 언급한다. (2베드 3,8-10)
- 하느님은 우리의 회개를 참고 기다리신다(2베드 3,14-15)